

2026년 8월 3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KIWOOM WEEKLY

폭락의 피크아웃, 반등 에너지 확보 구간

이번 주 코스피는 1) 미-이란 휴전 협상 재개, 2) 미국 7월 고용, ISM 제조업 PMI 등 주요 경제지표, 3) AMD, 샌디스크 등 미국 반도체주 실적, 4) 현대백화점, NAVER, 대우건설 등 국내 주요 기업 실적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7월 폭락분을 만회해 나갈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6,000~7,000pt).

이처럼 하루 만에 지수가 17%대 폭등하면서 역대 1위 일간 상승률을 기록한 만큼, 주 초반에는 일시적인 차익실현, 단기 속도 조절 물량이 출회될 소지가 있음. 그러나 31일 대폭등에도 7월 월간 수익률이 -22.1%로 1990년 이후 역대 3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30일까지는 -34.1%로 1위였음)은 여전히 코스피는 낙폭 과대 영역에 깊게 들어온 것으로 보는 게 적절. 선행 PER이 아직도 5.5배로 역사상 최저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 따라서, 31일 폭등이 단순 기술적인 반등으로 끝나기보다는, 추후에도 저점을 높여가는 회복 경로 진입에 무게중심을 두고 갈 필요. 관건은 주가 회복력의 강도와 지속성이며, 일차적으로는 이번주 예정된 주요 매크로 이벤트, 기업 실적, 외국인 수급 변화 등이 이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



|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RA 유지윤

jiyun.yoo@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7월 31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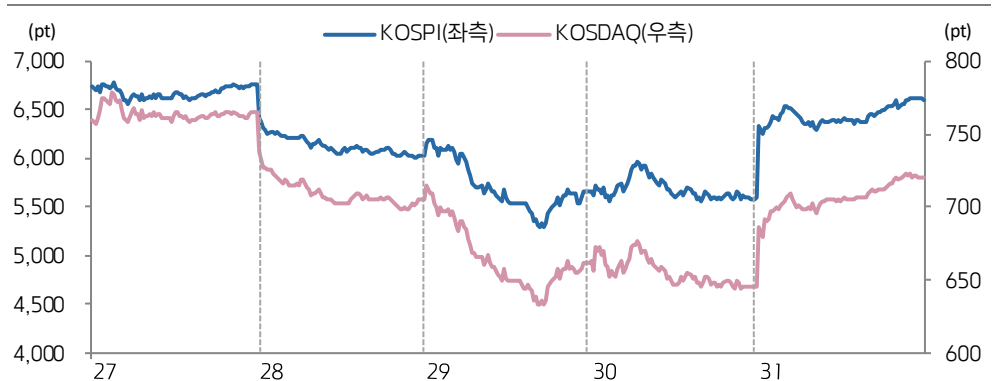
국내 증시는 중국 반도체 산업 성장과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우려, SK하이닉스 실적 실망으로 주중 급락했으나, 미국 빅테크 실적 호조와 반도체주 저가 매수세에 주 후반 급반등 마감(KOSPI -1.42%, KOSDAQ -3.8%)

주 초반에는 중동 지역 긴장 완화와 국제유가 하락에 힘입어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승 출발했으나, 중국 창신메모리 상장에 따른 중국 반도체 산업 성장과 공급 확대 우려가 부각되며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됨. 이후 미국 반도체주 급락과 AI 기업 간 순환금융 논란이 겹치면서 코스피가 하루 만에 10% 넘게 급락했고,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됨. 주 중반에는 SK하이닉스 실적이 사상 최고치임에도 시장 기대를 밀둔 가운데 주주환원 정책과 향후 가이던스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면서 반도체 투자심리가 추가로 위축됐고, 중국의 반도체 장비 자립 기대와 레버리지 상품 청산까지 맞물리며 지수 하락세가 지속됨. 이후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반등을 시도했으나 상승분을 반납하며 약세 흐름을 이어감. 다만 주 후반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실적 호조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급등으로 AI·반도체 투자 수요에 대한 신뢰가 회복됐고 6,500선을 회복함.

대외적으로는 중국 반도체 굴기에 따른 메모리 공급 경쟁 심화 우려와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 지속 여부가 시장 방향을 좌우함. CXMT 상장과 중국의 반도체 장비 개발 소식은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과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며 외국인 자금 이탈을 촉발했고, SK하이닉스 실적 실망과 레버리지 상품 청산이 낙폭을 확대함. 반면 미국 빅테크의 양호한 실적과 AI 투자 수요 재확인은 반도체 업황 피크아웃 우려를 일부 완화하며 외국인 자금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로 다시 유입시킴. 주중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된 뒤 마지막 거래일에는 매수 사이드카와 기록적인 급등이 나타난 점은 펀더멘털 변화보다 수급과 투자심리에 의해 시장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확대됐음을 보여줌.

업종별로 섬유/의류(+1.91%), 전기/전자(+0.14%), IT서비스(-0.06%), 음식료/담배(-0.21%), 제약(-0.67%)이 상대적 강세를 보인 가운데 건설(-13.54%), 오락/문화(-11.56%), 통신(-10.88%), 화학(-6.9%), 일반서비스(-5.06%)는 부진한 흐름. 한편, 외국인(-632억원 보험(-517억원), 건설(-298억원), 유통(-128억원)순으로 순매도, 기관(+5조 4,503억 원) 제조(+50,337억 원), 전기/전자(+42,202억원), 제약(+3,090억원)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8월 3일	월	한국	수출 (YoY, 1 일)	7 월	59.0%	70.9%
			수입 (YoY, 1 일)	7 월	27.8%	30.1%
		중국	레이팅독 제조업 PMI	7 월	52.0	51.7
		미국	S&P 제조업 PMI	7 월	-	53.8
			ISM 제조업지수	7 월	54.0	53.3
		실적	DL, LX 인터내셔널		-	-
8월 4일	화	한국	CPI (YoY)	7 월	3.0%	3.2%
		미국	무역수지	6 월	-73.00B	-77.60B
			JOLTs 구인 건수	6 월	7,250K	7,594K
			제조업 수주 (MoM)	6 월	0.4%	-1.3%
		실적	팔란티어, 캐터필러, 머크, 화이자		-	-
		실적	카카오페이, HDC, 대우건설, 강원랜드		-	-
		공개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		-	-
8월 5일	수	한국	외환보유고	7 월	-	\$427.36B
		중국	레이팅독 서비스업 PMI	7 월	53.9	54.1
		미국	ADP 신규 고용자수	7 월	75K	98K
			S&P 서비스업 PMI	7 월	-	53.6
			ISM 서비스업지수	7 월	54.3	54.0
		실적	스페이스 X, AMD, 암젠, 일라이릴리		-	-
		실적	노보노디스크, 디즈니, 쇼파파이		-	-
		실적	카카오뱅크, SK 텔레콤, 현대백화점		-	-
		공개	미 재무부 3 분기 자금조달 계획		-	-
	8월 6일	목	한국	경상수지	6 월	-
EU			소매판매 (MoM)	6 월	0.1%	0.2%
		실적	샌디스크, 소니, 도요타		-	-
		실적	카카오, LG 유플러스, 롯데 에너지머티리얼즈		-	-
8월 7일	금	미국	美 7 월 비농업고용자수 변동	7 월	88K	57K
			美 7 월 실업률	7 월	4.2%	4.2%
			美 7 월 시간당평균임금(MoM)	7 월	0.3%	0.3%
		중국	中 7 월 CPI (YoY, 9 일)	7 월	-	1.0%
			中 7 월 PPI (YoY, 9 일)	7 월	-	4.1%
		발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리치몬드 연은 총재		-	-
		실적	버크셔해서웨이		-	-
		실적	네이버, 롯데케미칼, DB 하이텍, 금호석유화학		-	-
		실적	한전기술, 파마리서치		-	-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이번 주 코스피는 1) 미-이란 휴전 협상 재개, 2) 미국 7월 고용, ISM 제조업 PMI 등 주요 경제 지표, 3) AMD, 샌디스크 등 미국 반도체주 실적, 4) 현대백화점, NAVER, 대우건설 등 국내 주요 기업 실적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7월 폭락분을 만회해 나갈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6,000~7,000pt).

31일(금) 미국 증시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에 따른 미 10년물 금리 4.7%대 돌파, 마이크로(-5.9%) 등 반도체주 차익실현에도, 아마존(+15.3%)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따른 AI 산업 불안 완화, 2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 지속 등에 힘입어 상승(다우 +0.5%, S&P500 +0.7%, 나스닥 +1.0%).

지난주 코스피는 주중 2거래일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최악의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31일(금)에는 17.9% 폭등하면서 주중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 아마존, MS, 메타의 호실적을 통해 이들의 AI CAPEX 확대가 실제 본업 성장과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확보한 덕분. 오픈AI 출신인 레오폴드가 설립한 레버리지 AI 헤지펀드의 공개 포지션 강제 처분 소식이 글로벌 반도체 디레버리징(강제 매도 물량)의 종료 가능성을 높여준 점도 수급상 금요일 폭등에 기여한 모습.

이처럼 하루 만에 지수가 17%대 폭등하면서 역대 1위 일간 상승률을 기록한 만큼, 주 초반에는 일시적인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될 소지가 있음. 그러나 31일 대폭등에도 7월 월간 수익률이 -22.1%로 1990년 이후 역대 3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30일까지는 -34.1%로 1위였음)은 여전히 코스피는 낙폭 과대 영역에 깊게 들어온 것으로 보는 게 적절.

선행 PER이 아직도 5.5배로 역사상 최저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 주말 중 발표됐던 한국의 7월 수출(YoY, +62.8% vs 컨센 +59.0%)이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178.8%) 뿐만 아니라 컴퓨터(+404.0%) 자동차(+7.0%), 선박(+46.9%) 등 20개 품목 중 19개 품목 수출이 개선된 점도 호재성 재료라고 판단. 또 3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거래대금 비중이 6.6%로 상장 이후 최저치(7월 평균 30%대)를 기록한 점도 눈여겨볼 부분.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 증가(보모) 영향도 있겠지만, 예탁금 상향 등 규제 시행, 회전을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발 수급 부작용의 추가 확산이 억제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

따라서, 31일 폭등이 단순 기술적인 반등으로 끝나기보다는, 추후에도 저점을 높여가는 회복 경로 진입에 무게중심을 두고 갈 필요. 관건은 주가 회복력의 강도와 지속성이며, 일차적으로는 이번 주 예정된 주요 매크로 이벤트, 기업 실적, 외국인 수급 변화 등이 이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

매크로상 7월 고용 및 ISM 제조업 및 서비스업 가격 지수, 미-이란 협상 복귀 여부 등이 중요할 전망. 매파적 동결이었던 7월 FOMC 이후 미국 10년물 금리는 상방 압력을 받으면서 4.7%대를 돌파한 실정. 이는 증시에 잠재적인 할인을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기에, 고용, ISM 등 주요 지표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연준의 긴축 불안이 완화되는 지를 주시할 필요. 또 최근 금리 상승에는 미-이란 군사 충돌 리스크도 상당부분 기여를 해왔음. 다만, 주말 중 트럼프가 1) 호르무즈 해협 즉각 개방, 2) 공격 취소 등을 언급하며 이란과 협상 재개를 발표했음을 감안 시, 미-이란 사태는 재차 협상 국면으로 돌입하면서 증시에 매크로상 회복 모멘텀을 부여할 것으로 판단.

2026년 8월 3일

KIWOOM WEEKLY

주식시장에서는 국내 반도체,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등 주도주 실적 발표는 종료됐지만, 여전히 여타 주력 업종들의 실적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 미국에서는 AMD, 샌디스크 실적이 국내외 반도체주의 주가 반등에 연속성을 부여하는 이벤트. AMD는 AI GPU와 서버 CPU 수요가 동시에 성장하고 있는지, 매출 증가가 총마진 개선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3분기 데이터센터 가이던스가 추가 성장을 시사하는지가 관전 포인트.

샌디스크 실적은 메모리 피크아웃 전망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벤트. 해당 주식은 최근 고점대비 주가가 40~50%대 급락을 겪는 과정에서, 최근 낸드 가격 약세 및 수요 불안 우려를 상당부분 소화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번 실적에서 다음 분기 가이던스와 낸드 가격의 추가 인상 여부, 장기공급계약의 추가 체결 여부 등을 통해 3분기 이후 메모리 가격 상승 사이클 종료 논란이 완화될지가 관건.

국내 증시에서는 현대백화점, NAVER, 대우건설 등 주요 업종들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음. 7월 말부터 2분기 실적시즌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 기간 동안 증시 폭락으로 개별 실적 재료가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던 경험이 있음. 그러나 현재는 폭락에서 벗어나면서 위험선호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구간인 만큼, 이번주부터는 개별 실적 결과에 따라 주가 탄력이 차별화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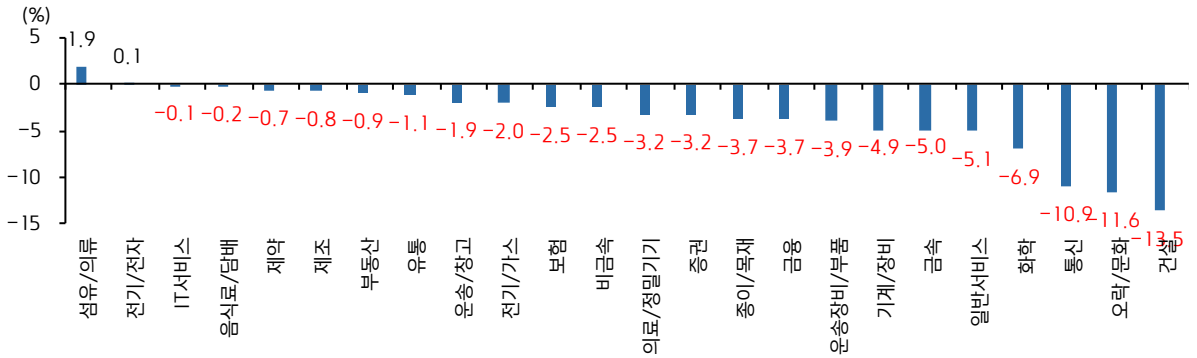
시장	종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6,595.45	17.9	-1.4	-22.2	56.5
대형주	7,249.63	19.1	-1.1	-23.1	65.6
중형주	3,676.74	5.1	-6.1	-11.7	-1.2
소형주	2,201.40	4.3	-2.6	-4.3	-12.6
코스피 200	1,046.81	20.0	-0.8	-23.6	72.8
코스닥	719.76	11.6	-3.8	-21.4	-22.2
대형주	1,746.20	13.7	-3.7	-27.2	-22.4
중형주	741.92	11.4	-4.1	-16.4	-17.5
소형주	2,106.39	7.1	-3.6	-10.2	-18.2
코스닥 150	1,214.60	13.3	-3.7	-27.0	-21.5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8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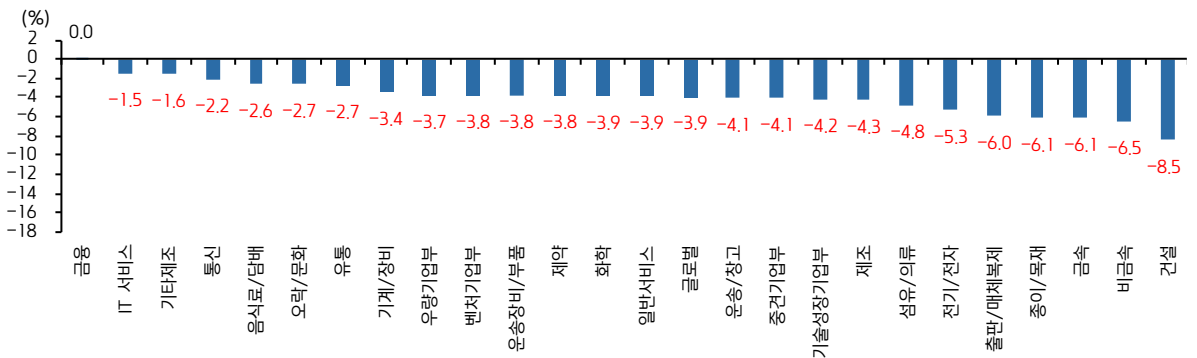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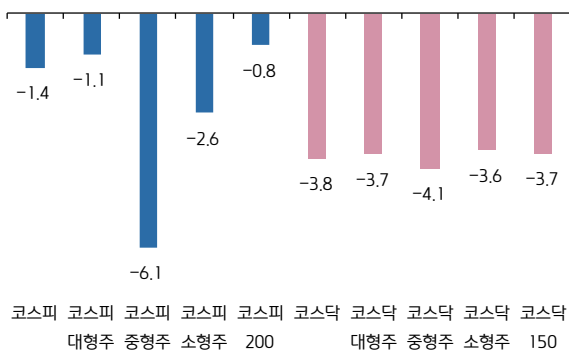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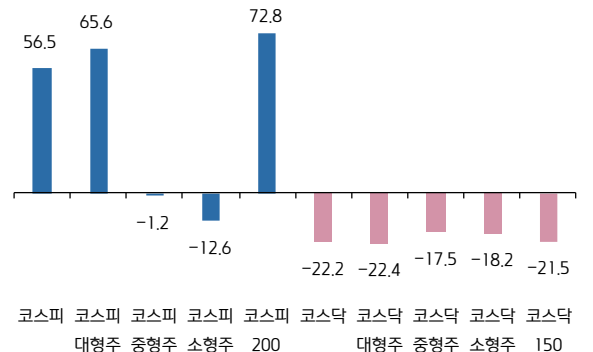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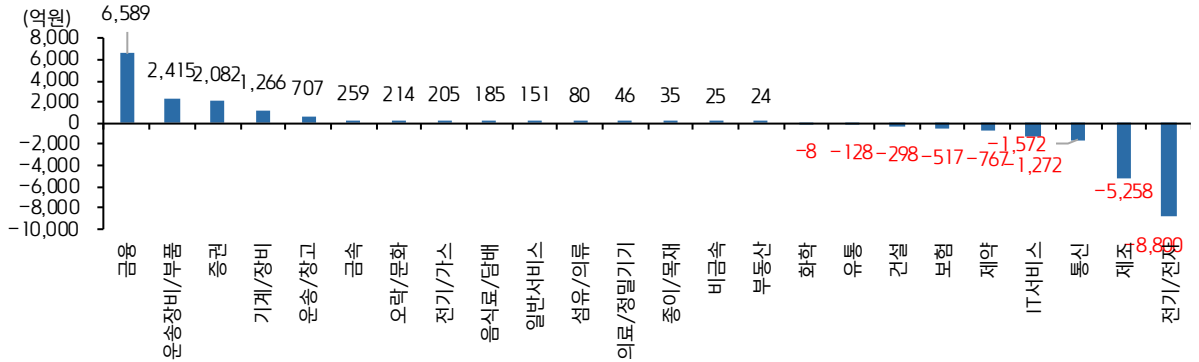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8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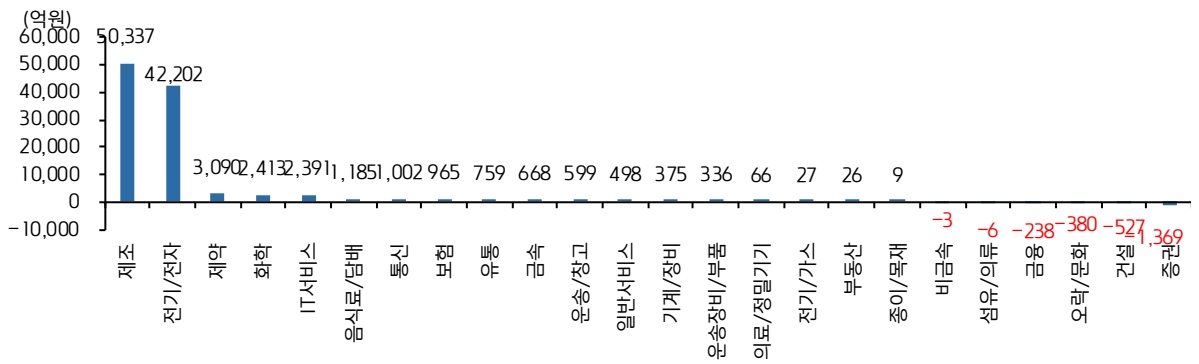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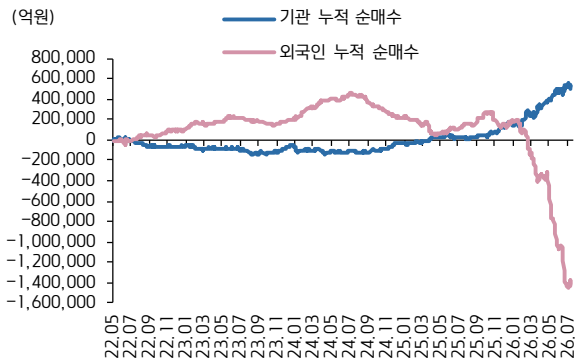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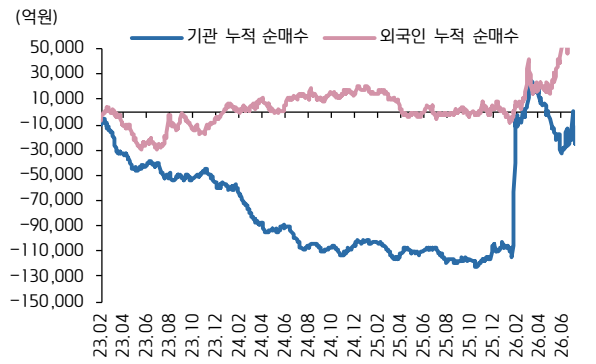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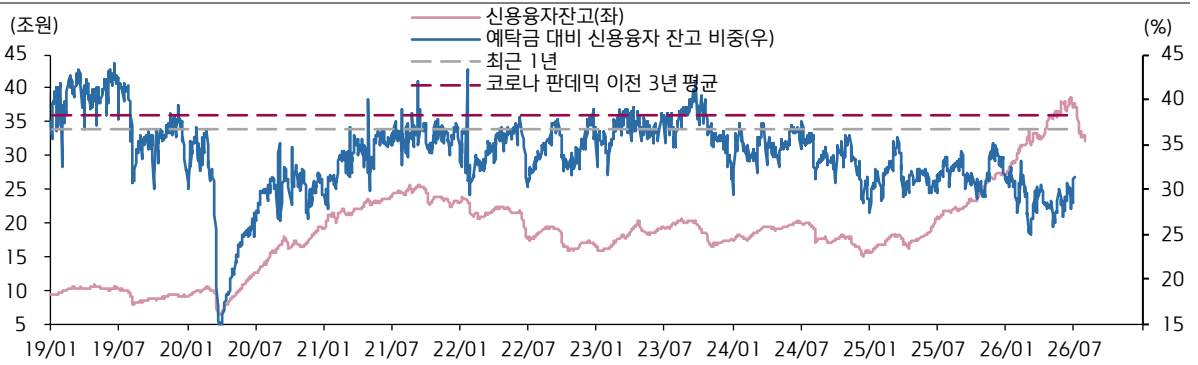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8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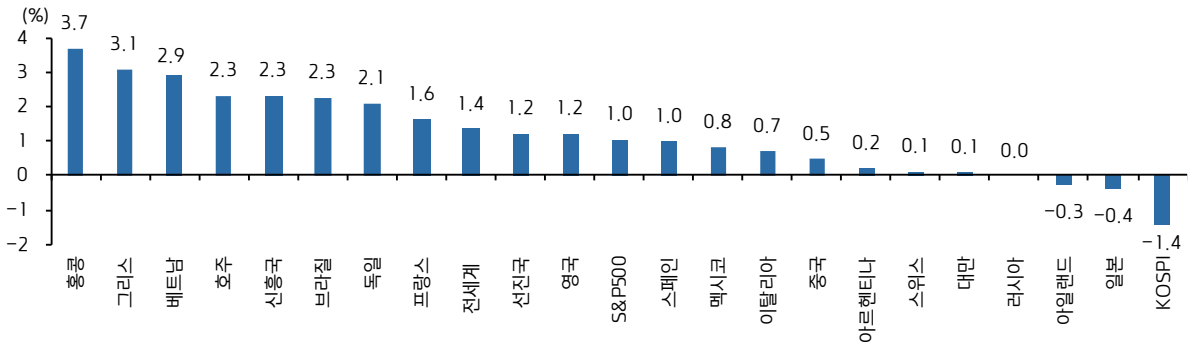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PI+KOSDAQ 신용용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용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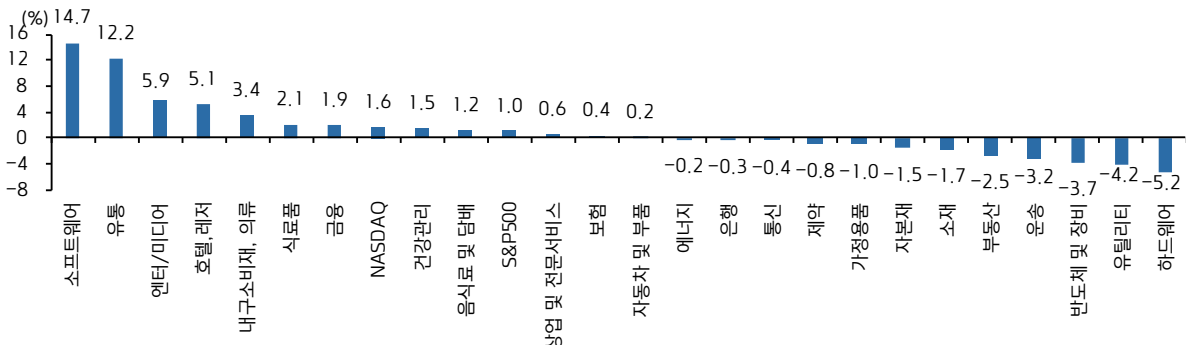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